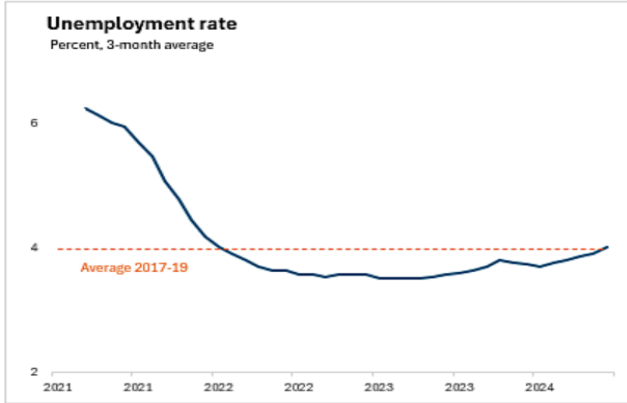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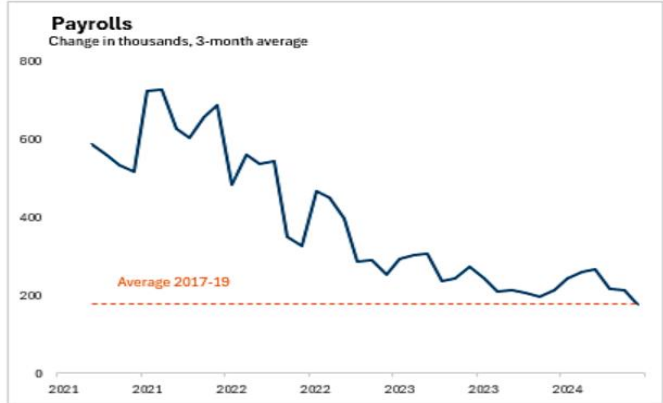


정상 수준으로 생각되고 있는 노동시장 (클라우디아 샴의 평가)

노동시장을 포함해 미 경제는 정상처럼 느껴질 만한 상황에 거의 도달했다. 좋은 비교 대상으로는 코로나19 이전이 될 수 있는데,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노동시장은 강했다. 코로나 확산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 후 매우 빠른 회복이 뒤따랐다. 특히, 코로나19 백신이 나온 뒤의 회복 과정에서 미국 경제는 매우 낮은 실업률과 큰 일자리 증가를 경험했다. 그 뒤로 이어진 냉각은 점진적이었고, 우리는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.



<실업률(3개월 평균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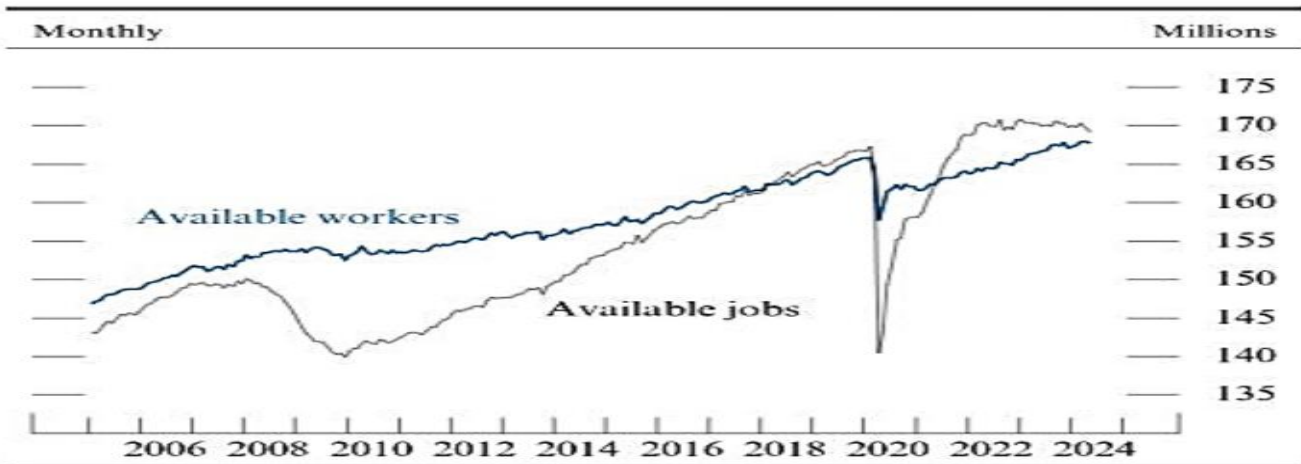
<비농업 취업자 수(3개월 평균) >

초기회복기에는 인력 부족, 직장 이동(이직) 급증, 빠른 임금 상승이 특징이었으나, 지속 가능할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았다.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임금 상승 발 인플레이션을 부추겼지만, 여기에서도 정상화가 이루어졌다.

7월 연준 통화정책보고서

노동수요 감소와 노동공급 증가로 올해 상반기 노동시장은 점차 덜 타이트해졌지만, 그럼에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.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은 팬데믹 직전 시기와 유사해 보인다. 다양한 노동시장 지표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데, 지난 7월 9일,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'일자리 수 대 근로자 수 갭' 지표를 제시했다. 이 지표는 전체 가용 일자리 수와 전체 가용 근로자 수의 차이(갭)를 측정한다. 갭의 플러스 쪽이 클수록 노동수요가 노동공급보다 많다는 의미이다.

$$\text{일자리 수 대 근로자 수 갭} = \text{전체 가용 일자리 수(노동수요)} - \text{전체 가용 근로자 수(노동공급)}$$



<연준 실무진이 계산한 가용 일자리 수 대 가용 근로자 수 격차(갭) 추이>

보고서에 따르면 이 갭은 2022년 초 61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5월에는 140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. 이는 2019년 평균인 120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.

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보고서 인플레이션과 고용이라는 두 가지 주요 변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 '인플레이션 상방' 위험은 언급하지 않으면서, '노동시장 냉각'을 계속 강조하면서 두 리스크에 대해 미묘한 균형 변화를 보였다. 이 같은 모습으로 보아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 만약 예상치 못한 둔화가 나타난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있을 것을 알 수 있다.